

전쟁기념비와 애도: 버지니아 울프의 『델리웨이 부인』*

김 영 주

I. 『델리웨이 부인』과 전쟁소설

제1차 세계대전은 “불행한 단절이며 20세기를 형성한 사건”으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글쓰기를 “압도”한다(Lee 336). 『제이콥의 방』(*Jacob's Room*)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제이콥 플랜더스(Jacob Flanders)의 삶의 궤적을 따르며, 『등대로』(*To the Lighthouse*)의 제2부 「시간이 흐르다」(“Time Passes”)는 프랑스에서 전사한 앤드류 램지(Andrew Ramsay)의 죽음을 기술함으로써 빅토리아 시대와의 급격한 단절을 야기한 제1차 세계대전의 위협과 파괴력을 암시한다. 전쟁의 부조리함과 이로 인한 죽음과 상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드러내는 이 두 소설에서 제이콥과 앤드류의 죽음은 공허한 부재로 인지되거나 괄호 안에 기입된 채 영원한 상실로 기억과 애도의 중간 지점에 남아있다. 『제이콥의 방』과 『등대로』가 제1차 세계대전과 이에 따른 급격한 변화 및 망각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단절 이후에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이들이 전장에서 죽은 이를

* 이 논문은 2011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1011019).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애도하는 의식은 1925년 소설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에서 이루어진다. 『알려지지 않은 버지니아 울프』(*The Unknown Virginia Woolf*, 1978)에서 울프를 유아론적 의식에 매몰되어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미학에 고립된 작가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던 로저 풀(Roger Poole)은 울프의 첨예한 역사인식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로 울프가 글쓰기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 개입한 점을 꼽는다(79). 풀은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고통과 부조리함에 대한 울프의 개입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울프의 글쓰기를 관통하는 모티프라고 논의하면서 『델러웨이 부인』을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라고 칭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79).

주지하듯이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전쟁후외상증후군에 시달리는 셉티머스 워렌 스미스(Septimus Warren Smith)의 삶과 죽음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의 폭력성을 직시하고 이로 인한 죽음과 상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러한 애도는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을 통해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회 작동의 정점에 있을 때 보여주기자”(Diary 2:248) 하는 집필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델러웨이 부인』과 1922년에 발표된 “포탄 충격”(Shell-shock)에 대한 국방부 위원회의 보고서를 연관 지었던 수토마스(Sue Thomas)의 1987년 논의 이래로 알렉스 쾰링(Alex Zwerdling)과 캐런 드미스터(Karen DeMeester)를 포함하여 셉티머스를 제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이자 생존자로 논의하는 일련의 비평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나는 문명의 폭력과 부조리함에 대한 울프의 날카로운 비판과 역사의식을 잘 포착한다. 셉티머스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광기에 시달리는 인물로 여기던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드미스터는 그의 증상을 참전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의 결과로 진단한다(649). 특히 드미스터는 언어장애 및 망상증과 환각 증세 등으로 나타나는 셉티머스의 증상을 전쟁후외상증후군에 대한 심리·의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하며 울프가 전쟁후외상증후군에 대한 심리·의학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이해를 탁월하게 소설화했음을 강조한다. 드미스터는 참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셉티머스의 고통이 참전 군인을 수용하는 전후 영국사회에서 더욱 배가된다고 지적하면서 『델러웨이 부인』은 아직 이러한 트라우마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결론짓는다(667).

본 논문은 전쟁이 끝난 후 4년여 후인 1923년 6월의 어느 날 런던의 일상을

포착하고 있는 『델러웨이 부인』을 전쟁을 기억하고 전사자를 추모하는 애도의 형식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은 빅토리아시대 질서와의 단절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 경험되지 않은 대규모의 인명 살상과 문명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근대적 전쟁을 초래했다. 탱크 및 전투기 등 산업기술 개발에 따른 최신 무기의 사용으로 대규모 살상과 폭격 및 공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이 도입되었으며 유례없이 산업화, 기계화된 전쟁의 양상은 전쟁터의 참혹함을 새롭게 부각하였다. 비행전투기의 공습과 폭격은 참호전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전쟁터를 일상적인 도시공간으로 확장하였으며, 20세기 이전의 전쟁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전쟁에 대한 기억을 양산했다. 20세기 초엽에 유럽을 휩쓴 이러한 근대적 전쟁의 경험은 그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애도하는 새로운 문화적 언어와 의례의 추구로 이어졌다. 전쟁 중에도 전쟁의 의미와 의의를 기리는 전쟁기념관이 설립되었고 전후에는 전쟁기념비 및 전사자 위령비 등이 영국을 포함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도시와 미국과 호주 등 군대를 파견한 참전국의 주요 도시에 건립되었다. 특히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에서 시행되던 관습에 따라 전사자들의 시신을 본국으로 후송하는 대신 전쟁터에 묻었으며, 예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전사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각각의 동일한 묘비를 세우는 것을 전사자 묘역을 건립하는 주요 방침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새로운 전사자 매장예는 전쟁터에서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부각시켰으며, 전사자의 탈계급화와 개인화를 주창하면서도 전사자를 처리하는 관료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전쟁예가 영국 본국에서도 시행되었다. 전몰장병위령비(the Cenotaph) 및 무명용사기념비(the tomb of the Unknown Warrior) 등이 제1차 세계대전을 기리는 전쟁기념비로 런던에 건립되었고, 묵념 등 휴전협정일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례가 도입되고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대규모 폭격과 공습, 참호전과 대규모 살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이 도입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양차 세계대전 사이 영국사회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문화가 시행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델러웨이 부인』에서 전몰자에 대한 영국사회의 공적인 애도의 양식으로 건립된 전쟁기념비가 전후 런던의 새로운 도시 지형물로 표식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델러웨이 부인』에서 전쟁의 기억이 전후 일상의 삶에 새겨지거나 혹은 잊혀지는 양상을 논의하고 전쟁으로 인한 상실에 대한 애도의 의식이 셉티머스의 죽음과 조우하는 클라리사의 의식을 통해

실행되는 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신성한 활기”와 “한 방의 총소리”

『델러웨이 부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4년여가 지난 1923년 6월의 어느 하루 동안의 런던의 일상을 담고 있다. 계절이 주는 생동감과 어우러진 도시의 역동성과 활기는 전쟁의 기억을 보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전후 영국사회를 드러낸다.¹⁾ 인플루엔자에서 갓 회복한 클라리사 델러웨이(Clarissa Dalloway)는 저녁에 있을 파티에 쓸 꽃을 직접 사졌노라며 런던의 빅토리아 거리로 나서면서 거리를 오가는 마차와 자동차의 분주함과 소란함, 머리 위를 나는 비행기에서 나는 높은 음울, 부산히 움직이는 취주 악대와 샌드위치맨이 함께 어우러져 자아내는 도시의 정경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삶”과 “런던”과 “유월의 이 순간”을 마주친다(4). 이러한 삶에 대한 생생한 인식은 곧 이어 전쟁이 끝났음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진다. “전쟁은 끝이 났지. . . 정말 하늘에 감사하게도 - 끝났어”(5)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클라리사는 “왕과 왕비가 궁전에 있음”에, 경마장에서는 말들이 질주하고, 크리켓 경기장에서는 경쾌한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음에 안도한다(5). 클라리사는 그녀 자신의 삶을 위협했던 인플루엔자와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앗아간 제1차 세계대전을 뒤로 하고 거리에 감도는 “신성한 활기”(7)를 음미한다.

『델러웨이 부인』이 포착하고 있는 1923년의 6월의 이 순간 속에 울프는 1915년 유럽의 참호가 아닌 후방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전쟁의 기억과 공포를 불러들인다. 멀베리네 꽃가게에 들어서서 온갖 빛깔의 꽃들이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해 있던 클라리사는 바깥 거리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한 방의 총소리”(13)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이 갑작스러운 폭발음은 거리의 모든 움직임을 멎게 하고 상가와 클럽에 있던 모든 이들의 놀란 시선을 모아 분주하고 소란한 도시의 일상성에 균열을 가져온다. 울프는 1915년 2월 1일자 일기에 클라리사가 걸었던

1) 마이클 노스(Michael North)는 영국일간지 『데일리 메일』(*the Daily Mail*)이 메리공주(Princess Mary)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던 1922년을 “진정으로 전후기간이 시작된 첫 해”로 지목했던 점을 지적한다(5).

세인트 제임스 거리와 피커딜리를 산책할 때 폭발음 때문에 사람들이 클럽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세인트 제임스 거리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사람들이 클럽에서 뛰어나와서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주변을 둘러 보았다. 하지만 제플린도, 비행기도 없었다. 아마도 커다란 타이어가 터진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소리나 하늘에 있는 검은 물체를 폭발이나 독일 비행기라고 여기는 것은 나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본능인 것이다”(Diary 1: 32). 폴 세인트-아무르(Paul K. Saint-Amour)가 지적하듯이(141), 전쟁이 끝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1923년 6월의 런던은 독일의 제플린 공중 폭격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전시의 런던과 병치되어 전후 런던이 아직 전쟁의 공포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으로 인해 파열된 신경증적인 외상증후군이 지연된 효과로 나타나듯이, 전쟁이 끝나고 신성한 활기로 가득 찬 듯한 런던 거리에 전쟁의 기억과 고통이 일상성에 균열을 일으키며 새겨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쟁의 상처와 이로 인한 슬픔과 좌절은 『델러웨이 부인』의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다. 클라리사는 6월 런던의 활기를 통해 전쟁이 끝났음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녀 주변 인물들의 삶이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감정적 상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지한다. 폭스크로프트 부인(Mrs. Foxcroft)의 경우 아들이 전사한 후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원의 상속권이 사촌에게 이양되었고, 벅스보로우 부인(Lady Bexborough)은 아들 존(John)의 전사를 알리는 전보를 손에 쥐어 채 바자회를 연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일광절약시간제, 흔히 서머타임으로 불리우는 관습은 여전히 1923년 6월의 런던의 일상의 일부로 남아있으며, 클라리사의 남편, 리처드 델러웨이(Richard Dalloway)가 속한 위원회는 전쟁 중에 일어난 아르메니아인 학살과 추방, 이로 인한 대규모 피난민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썬티머스의 상사인 브루어씨(Mr. Brewer)는 전쟁 중에 그의 제라늄 화단이 모두 망가지고 그의 요리사가 신경과민으로 폐인이 되었다고 한탄하고(89), 한가로운 여름날 오전 레전트 공원(Regent Park)에서 잠에 빠져드는 피터 월쉬(Peter Walsh)는 공원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 나이든 여인을 “전쟁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형상”(58)같다고 여긴다.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가 『도시의 문화』(*The Culture of Cities*, 1938)에서 기술하였듯이 양차 세계대전 사이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도시들에서는 비행

폭격기의 공습경보로 일상적인 공포가 조성되고 위기감이 고조되어 전장으로서의 도시(war metropolis)라는 양상을 띠게 된다(275). 1915년 울프가 경험했던 도심 속의 공중폭격에 대한 불안은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했고 실제 런던에 대한 공습은 몇 달 후에야 실제로 일어났다. 1915년 5월과 1918년 5월 사이에 런던에 투하된 독일 제플린과 폭격기의 폭탄으로 실제로 22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물 174채가 파괴되었으며 619채가 넘는 건물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Saint-Amour에서 재인용 132). 1914년과 1918년 사이 비행기와 비행선을 통해 독일군과 연합군 측에 투하된 폭탄은 민간인을 포함하여 200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으며 5000명에 달하는 상해를 초래했다(132).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기의 폭격과 공습경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양차 대전 사이 근대 도시의 일상성에 뚜렷이 새겨지는 양상을 포착하고 있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런던은 과거에 치렀던 전쟁이 야기한 공포와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도시인 동시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전쟁이 자아내는 실제적인 공포에 시달리는 도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자동차 폭발음 장면의 전후에 소설 속에서 가장 명백하게 전쟁의 피해자로 제시되는 인물들, 즉 도리스 킬먼(Doris Kilman)과 셉티머스, 그리고 그의 이탈리아인 아내 루크레지아(Lucrezia)를 배치함으로써 자동차 폭발음과 전쟁의 연관성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꽃가게에 들어서면서 딸 엘리자베스(Elizabeth)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킬먼에 대한 거부감과 미움에 대해 속고 하던 클라리사는 꽃가게에서 마주한 형형색색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취해 한순간 그 미움과 증오를 넘어설 수 있을 듯 여기지만, 이러한 환상은 곧 “총소리”로 여겨진 폭발음에 묻히고 만다. 불거리와 살거리로 가득 찬 전후 도시 런던에서 소외된 채 주변부에 비껴나 있는 킬먼의 입지가 독일계 여성으로서 당시 영국사회에 팽배한 반독일정서의 비이성적인 논리에 반기를 들었음에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독일의 공습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으로 각인된 자동차 폭발음은 미학적 도취를 통해 킬먼과의 화해에 이를 가능성을 단절한다.

자동차 폭발음을 매개로 참호에서 전쟁을 치른 셉티머스와 후방에 남아있던 클라리사는 서로를 의식하지는 못한 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 비껴 지나친다. 거리를 지나던 셉티머스는 폭발음을 내며 꽃가게 앞에 멈춰선 자동차 옆 인

도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선 채 움직이지 못한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갔다. 자동차 엔진의 진동이 불규칙하게 온 몸을 구석구석 두드리는 맥박소리같이 들렸다. . .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한 중심으로 이렇게 서서히 모이는 것은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마치 어떤 끔찍한 것이 거의 표면에까지 떠올라 확 타고르려는 것 같았다”(14-5). “총소리”로 여겨진 갑작스러운 폭발음은 그에게 참호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셉티머스를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할 듯이 느끼며 두려움에 얼어붙어 버린다. 이러한 셉티머스의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루크레지아에게 런던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영국 사람들”(15)로 가득 찬 낮은 도시이다. 전쟁 중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셉티머스와 휴전 협정이 맺어진 직후 밀라노에서 결혼한 루크레지아는 소위 전쟁신부로 전쟁이 끝난 도시 런던에서 여전히 전쟁의 기억 속에, 설 곳을 잃고 한없이 추락하는 듯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는다. 셉티머스와 루크레지아는 전쟁이 끝난 뒤 5년 가까이 지난 런던 거리에서 여전히 전쟁의 기억과 상처의 기표로 남아있으며, 이틀 전 에딘버러에서 런던에 처음 온 스코틀랜드 처녀인 메이지 존슨(Maisie Johnson)에게 셉티머스와 루크레지아는 몹시 기이하게 여겨진다. “외국인인 것처럼 보이는”(26) 루크레지아와 “이상해 보이는” 젊은 남자 셉티머스는 메이지 존슨에게 영문 모를 두려움을 일으켜 발작적으로 “공포! 공포!”라고 외치고 싶게 한다(27).

자동차 폭발음 장면에서 드러나는 혼란과 불안은 전쟁의 기억과 상처가 참호에서 전쟁을 치른 참전군인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과 영국의 후방에 남아있던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암시한다. 전쟁 신부로 런던에 온 루크레지아는 영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영국시민권을 부여하는 1844년 귀화법에 따라 영국인이 되었으나, “자그마한” “이탈리아 여인” 루크레지아는 “이제는 사람들”(15)인 영국인들 사이에서 “혼자”임을 치절하게 느낀다(24). 루크레지아의 소외감은 부분적으로 전후 영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동안 1914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된 외국인 이민법은 영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것으로(Usui 156), 양차대전 사이 영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척감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루크레지아의 소외감이나 맹목적인 반독일정서의 팽배로 배척당한 킬먼의 소외감은 “전쟁이 끝났음”에 안도하는 클라리사의 감상이 설

부른 것이며,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회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런던 거리에 각인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전쟁의 상흔이 남긴 고통이 여전히 개인들의 의식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폭발음이 일으킨 거리의 소요는 아이러니하게도 거리거리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인의 의식을 수렴하여 왕실과 국가의 위엄, 제국의 존엄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의례로 환원된다. “왕세자나, 여왕이나, 수상”(14)이 땀으리라고 여겨지는 차에서 난 갑작스러운 폭발음은 소란스럽고 다양한 도시의 움직임 일순 멈추게 하고 미세한 파문을 남겨 “아주 심오한 어떤 것”에 대하여 “엄청난 힘”으로 “모든 이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18) 진동을 야기한다. 본드 거리의 모든 모자 가게와 양복점에서 낫선 이들은 서로서로를 쳐다보며 “죽은 자들을, 그리고 국기를, 또는 제국을 생각”(18)했으며, 세인트 제임스 거리의 클럽에서는 “연미복에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남자들이 “한층 더 몸을 곧게 세우며 뒷짐 진 손을 풀고 필요하다면 대포의 포구 앞까지 그들의 군왕을 수행할 준비”(18)를 하는 듯하다. 버킹엄 궁전의 문 앞에 모여든 가난한 이들도 국기와 궁전과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바라보며 “영국인의 가슴 속에 무슨 깃발인가를 휘날리게 지켜” 올린다(20). 벤자민 하겐(Benjamin D. Hagen)은 길을 지나치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셉티머스와 타이어의 파열로 멈춰 선 왕가의 자동차가 함께 조우한 그 잠깐 동안의 순간에 지나간 전쟁을 기억하고 전사자를 추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바람이 잠시나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542, 543). 그러나 자동차 폭발음이 런던 시내에 야기한 공동체적 애도의 의식, 즉 국가의 존엄함과 제국의 “위대함”에 대한 경외와 희생에 대한 애도는 실제 이 공동체적 공간에 전쟁의 희생자인 셉티머스와 루크레지아가 수렴되지 못하고 배제된 채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허하고 맹목적이다.

III. 전쟁기념비와 “대리석 같은 시선”

『델러웨이 부인』에서 이러한 공적인 애도, 즉 왕실과 수상으로 대변되는 공적인 위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애도의 의식은 공허하고 기계적인 의례로 나타난다.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포착되는 런던의 도시 지형도에 1920년 건립된

전몰장병 위령비를 포함한다. 이 기념비는 1919년 7월 19일 베르사이유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공식화된 종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열린 승전행진 행사의 일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거나 행방불명된 영국군을 기리기 위하여 처음 제작되었다. 목조물로 건립되었던 임시 기념비는 이듬해에 석조물로 재건립되었고, 1920년 11월 11일 두 번째 휴전협정 기념일을 기하여 당시의 국왕 조지 5세(George V)는 화이트홀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기념비의 제막식을 거행했다. 1919년 승전행진 시 모든 군대는 예를 갖추기 위해 이 기념비 앞을 지나 행진했으며 기념비를 지나칠 때 군악대는 침묵으로 예를 표했다. 이후 이 기념비는 전쟁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준수되는 집단적 침묵은 전쟁으로 인한 상실을 애도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이 윈터(Jay Winter)는 승전을 축하하는 행진의 중심이 될 임시 건축물로 기획되었던 기념비가 국회의사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인접한 런던의 중심부에 영구적인 전쟁기념비로 자리 잡게 된 점에 주목하면서 전몰장병 위령비는 승전축하 행사라는 한시적 목적에서 벗어나 전쟁과 전쟁의 희생에 대하여 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논의한다(104). 『델러웨이 부인』에서 이러한 집단적인 애도의 의식은 “제복을 입고 총을 멘” 소년들이 화환을 들고 전몰장병 위령비를 향하여 화이트홀을 행진하고 있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영국에 대한 의무, 감사, 충성, 사랑을 칭송하는 글귀의 글자 같은 표정”을 한 소년들이 “엄숙한 모습”으로 행진할 때 차량과 화물차들은 이들을 존중하여 멈춰 선다(51).

그러나 이들 소년들의 기계적인 행진은 클라리사가 런던에서 느끼는 “신성한 활기”와 다양한 삶의 순간들이 “들고 나는” 역동성과 상치된다. “건장해 보이지 않는” 소년들은 “균등하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 삶의 “다양성과 수다스러움”을 “기념비와 화환” 아래에 묻을 듯이 꾸준히 걸어간다. 이들을 바라보던 피터는 이 소년들이 그들 앞에 줄지어 있는 영국의 위대한 군인들—“넬슨, 고든, 해브록”의 동상들처럼 “대리석 같은 시선”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울프가 전몰장병 위령비에 현화하기 위해 화이트홀을 행진하고 있는 소년들을 묘사하는 언어는 이 전쟁기념비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의미심장하다. 케이티 트럼페너(Katie Trumpener)가 논의하듯이 “영광스러운 사자들”(The Glorious Dead)에게 헌정된 이 위령비는 어원인 그리스어 뜻 그대로 “텅 빈 무덤”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사한 모든 이들을 기리는 무덤이기도 하지만, 전사자 한 사람 한 사

람의 개별성과 희생을 삭제하고 경험의 집단성과 공동체적 정체성만을 부각하는 장치이다(1096). 『델러웨이 부인』에서 신성한 활기도, 역동성도 없이 균등한 움직임으로 삶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차갑고 육중한 기념비에 매몰시켜버릴 듯한 소년들의 모습은 참전군인 개개인의 경험과 희생을 획일화하고 대영제국의 군인이라는 집단정체성을 내세우는 기념비와도 같다. 특히 이 전쟁기념비가 차갑고 육중한 석조물로 건립되었으며, 말 그대로 “텅 빈 무덤”(the empty tomb, 51)으로 불리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석 같은 시선”으로 다양성을 지닌 삶을 희생하고 “뺏겨지면서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체와도 같은 모습으로 마취되어” 갈 듯한 소년들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텅 빈 무덤”을 상징적으로 채울 미래의 군인으로 비춰진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왕족이 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동차의 파열음에서 비롯된 한 순간의 침묵과 일상의 멈춤, 그리고 집단적인 추모의 순간과 전쟁기념비를 향한 소년들의 행진에서 연상되는 차갑고 획일적인 시선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기념하고 전사자를 비롯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형식들이 진정한 애도의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모드리스 엑스타인(Modris Eckstein)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진행된 공식적인 전쟁기념비 제작 행사는 전쟁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환기하고 추모하기 보다는 오히려 억압하며 전시에 겪은 참전군인과 민간인의 경험의 간극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논한다(Eckstein 255-56). 『델러웨이 부인』에서 총소리로 여겨진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본드 거리에서 장갑을 사고 있던 부인네들과 세인트 제임스 거리의 클럽에서 연미복 차림으로 『태틀러』지(the Tattler)를 뒤적이던 신사들에게 제국의 위용과 제국의 일꾼으로 전장에 나갔던 이들에 대한 추모를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면, 셰익스피어의 극으로 대변되는 영국을 지키고자 참전하였던 셉티머스에게는 참혹하고 부조리한 참호의 기억을 다시 생생하게 되살리게 하며 낮은 전장에서 포격에 맞아 처참하게 전사한 동료 에반스(Evans)의 혼령을 두려움 속에 마주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셉티머스가 런던의 공원에서 이국의 참호에서 죽은 이와 말을 나누고, 루크레지아가 극단적인 소외와 고립의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질 때, 전쟁 기간 동안 인도에서 머물렀던 피터는 젊은 부부 셉티머스와 루크레지아를 바라보며 젊음의 번덕스러운 열정과 계절의 풍요로움, 문명의 건설함을 음미한다. 그에게 1923년의 런던은 풍요로움과 신선함과 문명을 모두 지닌,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인 도시이다(71).

울프는 전몰장병 위령비와 더불어 또 다른 전쟁기념비를 『델리웨이 부인』이 제시하는 런던의 지형도에 삽입한다. 전쟁이 끝나고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독일정서에 몰려 영국사회의 주변부로 소외된 킬먼은 종교적 열광주의에서 도피처를 구하며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을 찾는다. 마치 소년들이 총을 메고, 화환을 들고 위령비를 향해 꾸준히 행진하듯이, 킬먼은 자신의 몸에 어울리지 않을 페티코트 꾸러미를 들고 “성소”인 사원을 향해 “끈질기게”(133) 나아간다. 그녀가 손을 깎지 끼고 몸부림을 치듯이 격렬하게 “허영과 욕망,” “증오와 사랑”(134)의 감정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참배객들은 “무명용사의 무덤”(the tomb of the Unknown Warrior, 133) 주변을 어슬렁거리고는 곧 사라진다.

무명용사의 무덤을 포함하여 종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비와 의식은 제1차 세계대전의 소산으로, 독일 및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에서 널리 시행되었다(Kuhlman 97). 특히 영국의 경우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유와 평등성의 원칙을 내세워 영국 군대와 영연방자치령 군대의 전사자들을 연합군 전사자와 구분하여 유럽에 묘역을 만들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대륙 서부전선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Winter 23). 대신 영국은 전사자의 귀환이라는 상징적인 의식을 1920년 시행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된 무명용사의 무덤은 프랑스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단 한구의 시신을 매장한 곳으로, 이름도, 계급도, 인종도 확인되지 않은 이 전사자의 시신은 1920년 휴전 기념일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50만 명에 가까운 영국군을 대표하여 모든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비 속에 안치되었다. 같은 날 화이트홀에 영구적으로 건립된 전몰장병 위령비 제막식에 참석한 조지 5세는 곧이어 무명용사의 무덤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몰장병 위령비와 마찬가지로 무명용사의 무덤은 제막되자마자 수많은 영국인들의 전쟁 추모지가 되었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런던에 건립된 무명용사 기념비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국의 전사자들의 상징적인 묘지로 간주하였으며,²⁾ 미국과 이탈리아, 벨기에와 포르투갈 등은 이듬해에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무명용사의 무덤

2) 호주의 경우 1993년 이러한 관습을 깨고 영연방자치령 전사자 묘역에 매장되어 있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사자들 중 한 명의 유골을 본국으로 옮겼으며, 이 무명용사는 군장례식을 거쳐 캔버라에 있는 호주전쟁기념관 내 추모의 전당에 안치되었다(Winter 28).

을 자국에 건립하였다(Winter 27).

그러나 『델러웨이 부인』에서 무명용사의 무덤은 추모지라기 보다는 런던의 수많은 볼거리 중의 하나로 제시된다. 이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온 듯한 수많은 참배객들은 불박힌 듯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길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메우고 있다가는 역대 영국의 왕들의 조각상, 즉 “밀랍으로 빚어 만든 작품들”(133)을 보러 자리를 뜬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신을 50여만 명의 전사자들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추모하는 무명용사의 무덤은 죽음 후에도 밀랍으로 빚은 몸을 부여받고 영원히 전시되는 영국의 역대 왕들과 나란히 병치되어 수많은 “중산층 영국의 남자와 여자들”(133)이 잠시 동안 적절한 감정과 호기심을 분출하는 볼거리가 된다.

울프는 전쟁 기간 동안과 종전 후에 기록한 자신의 일기에서 전쟁 후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애국주의적 웅변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드러낸다. 1918년 11월 휴전을 축하하는 행사를 지켜보며 울프는 “심란하고” “우울하다”(Letters 2: 290)고 기록했으며, 1919년 7월 19일 평화의 날을 자세히 묘사하며 “이렇게 평화를 즐거워하는 데에는 무엇인가 계산되고 정치적이며 신실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Diary 1: 292). 장군들과 군인들, 탱크와 간호사들과 군악대 등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행진을 지켜보면서 울프가 간파한 “사람들을 달래고 가라앉히려는 무엇인가”의 작동은 전몰장병 위령비와 무명용사의 무덤이 허위적인 공동체의식과 민주주의의 구현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19년 전몰장병 위령비를 설계한 에드윈 루티엔스(Edwin Lutyens)는 기독교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 전쟁기념비가 대영제국의 변방에서 영국군대의 일원으로 유럽에서의 전쟁에 참전한 많은 힌두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ter 103). 또한 1920년 무명용사의 무덤 제막식에 대한 『타임즈』(the Times)의 『영면에 든 용사』(“The Warrior Laid to Rest”)라는 제목의 기사는 군대 내 계급과 출신지역 및 계층을 확인할 수 없는 무명용사야말로 대영제국이 치른 희생을 대표하는 데 적격인 인물임을 강조한다.

시신이 곧 안치될 무명용사는 높은 지위로 태어났을 수도 있으며 낮은 지위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그는 해군이었을 수도 있으며 육군이거나 공군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잉글랜드인일수도 있으며, 스코틀랜드인이거나, 웨일즈인, 아일랜드인일 수도 있으며, 영연방자치령 출신이거나, 시크교도 혹은 구르카족

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대영제국의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다. (Darrohn에서 재인용 532)

전몰장병 위령비와 무명용사의 무덤과 같은 전쟁기념비는 개개인의 삶과 죽음을 국가공동체로 귀속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죽음을 추상화하고 계급과 인종, 지역성, 종교 등의 차이를 넘어 그의 희생을 민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울프는 『델러웨이 부인』에서 희생의 평등성과 코스모폴리탄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수사학이 제국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균형”(proportion)과 “전환”(conversion)의 원칙에 다름 아님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균형이라는 이름의 여신은 영국 안의 “미치광이들을 격리시키고 아이들의 출생을 금”하며, “부적격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퍼뜨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영국을 번성케” 한다(99). 또한 균형의 자매 여신인 전환이라는 이름의 여신은 “런던의 변두리 지역” 뿐 아니라 “인도의 열기와 모래 가운데에서, 아프리카의 진흙과 늪에서, 요컨대 기후나 악마가 인간들에게 그녀 자신의 진실한 신념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곳 어디에서나”(109) 나타나며, “사랑이나 의무, 자기희생 같은” 훌륭한 명목이라는 “그럴듯한 위장” 아래 숨어서 “권력을 탐”하고 “피를 더 사랑”(100)하여 “반대자를 짓밟고” “갑자기 덮쳐 삼켜”버린다(102).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게 브루튼 부인(Lady Bruton)은 캐나다를 비롯한 백인정착 영연방 자치령에 영국의 젊은이들을 이주시켜 제국의 변방에서 영국성을 확보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셉티머스는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에서는 살아 돌아왔다 해도, 균형과 전환이라는 원칙하에 진행되는 도시화, 근대화, 제국화의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울프의 화자는 참전 이전의 셉티머스의 삶을 간략하게 그리면서 “런던은 스미스라 불리는 수백만의 젊은 청년들을 삼켜버렸다”고 기술한다(84). 런던에서 그는 “셰익스피어에 대해 강의하는 이사벨 포울(Isabel Pole)과 사랑에 빠지고”(85), 전쟁이 나자 “셰익스피어의 극들과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광장을 거니는 이사벨 포울”의 영국을 지키기 위하여³⁾ 지원 입대하여 “숭고한” 전쟁을 통하여

3) 여러 역사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두드러진 양상으로 유럽 전체를 휩쓴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정서를 지적한다(Kuhlman 94). 많은 영국 군인들은 고국과 고국의 가족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포병대의 일원이었던 크리스찬 크레스웰 카버(Christian Creswell Carver)는 전장에서 동생에게 보내

“우정”을 나누고 “남자다움”을 드러낸다(86). 휴전 후 영국을 동경하고 영국인을 존경하는 이탈리아 여인에게 청혼한 그는 영국에 돌아와 “십자훈장”을 수여받고(88) 승진도 한다. 도시의 사무원이라는 근대적 도시계급의 일원으로 영국의 근대적 문명을 추종하여 참전했고 전쟁 중의 공로에 대해 사회적 보상을 받은 셉티머스의 삶의 궤적은 전쟁과 영국사회의 면면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영국문학전통에 대한 애착은 애국심의 발로가 되고, 전쟁터에서 발현되는 “남성다움”은 사회적 공로가 된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의 남성다움의 발현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친밀함을 대가로 치르고 담보된다. 전장에서 셉티머스는 “에반스라는 상관의 주목(attention), 아니, 사랑(affection)”을 받으며 “벽난로 앞 깔개 위에서 놀고 있는 두 마리 개”처럼 “함께 있어야 했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 다투고, 서로 언쟁을”(86) 벌이지만, 에반스가 휴전 직전에 포탄에 맞아 전사했을 때 셉티머스는 숭고한 전쟁이 가르친 대로 냉정과 이성을 유지한다. 그는 “무심(indifference)”하게 에반스의 죽음을 지켜보고, 감정적 동요와 슬픔을 차단한 채 살아남는다. 무심함이 공포로 다가왔을 때 그는 감정적 허위로 도피한다. 셉티머스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와 결혼했고”(91), 결혼 후에 외로워하고 불행해하는 아내 옆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음”에 “한 발짝 더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내린다(90). 셉티머스는 남자다움과 이성적인 무심함으로 무장한 채 에반스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고 서둘러 감정적 허위를 근간으로 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감정적 허위와 애도의 부재는 셉티머스를 정신분열적 백일몽으로 몰아넣는다. 자기분열적인 백일몽 중에 셉티머스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경계를 넘어 죽은 에반스의 환영을 보거나 전 우주와 신비한 합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홈즈(Dr. Holmes)는 이러한 셉티머스를 영국적인 남성상을 위반하는 사례로, 윌리엄 브래드쇼 경(Sir William Bradshaw)은 셉티머스를 균형과 전환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러한 원칙을 위협하는 사례로 간주한다.

영국사회의 계급적 특권에서 소외된 젊고 왜소한 사무원이었던 셉티머스, “세익스피어의 영국”에 서약하고 제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던 셉티머스는 이제 사물의 아름다움도, 음식의 맛도,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이” 죽음처럼 차갑고 무미건

는 편지에서 자신이 “언제나 영국을 위해, 영국의 들판과 시골길, 나무들, 영국의 분위기, 그리고 영국의 평온한 날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느낀다”고 적는다(Houseman 68).

조한 고립 속에 잠겨있을 뿐이다. 이러한 셉티머스의 모습은 앞서 “영국에 대한 의무, 감사, 충성”(51)과 같은 문구를 표정에 담고 삶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물러서야만 얻을 수 있는 “시체처럼” “차가운 시선”(51)을 띤 채 전몰장병 위령비를 향해 행진하던 소년들의 모습과 병치된다. 전몰장병에게 헌화하려는 소년들의 대리석 같이 차가운 시선이 참전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대신 “텅 빈 무덤”일 뿐 실체도 없는 “영광스러운 사자들”이라는 집단정체성을 내세우는 위령비의 공허함을 시사한다면, 죽음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한 고립 속에 잠겨 있는 셉티머스의 공포는 에반스의 죽음을 채 애도하지 못하고 무심함과 감정적 허위로 물러난 삶의 징후이다.

IV. 죽은 자의 귀환과 “장미꽃다발”

『델러웨이 부인』에서 전사자에 대한 공적 애도가 공허하거나 맹목적으로 나타났다면, 전쟁과 관련된 상실에 대한 애도는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이루어진다. 홈즈 의사와 브래드쇼 경이 주창하는 획일적인 남성성과 균형 및 전환의 원칙을 거부하면서 셉티머스는 죽음에 대해 숙고한다. “곧 죽음을 맞을 이들이 혼자이듯이, 이제 그는 온전히 혼자였고 저주받았고 버림받았기에, 거기에는 일종의 사치스러운 즐거움이 있었고, 숭고함이 넘치는 고독이 있었다”(92). 셉티머스의 죽음은 죽음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삶을 제도화하고 일상화하는 균형과 전환의 원칙에 파열을 일으키는 행위인 동시에, 에반스의 죽음 이후 무심함과 냉정함으로 서둘러 차단했던 애도의 행위이기도 하다. 정신분열증적인 백일몽 속에서 셉티머스는 일상적인 모든 것이 “진리”이며, “그 자체가 진리인 아름다움이 도처에 산재해”(69)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반스의 혼령을 마주한다. 실제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회색 옷을 입은 피터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던 셉티머스는 피터를 에반스로 여기고 아무 상처도 없이, 진흙도 묻히지 않은 채 다가오는 죽은 에반스를 웃음으로 맞이하며 스스로를 인간의 운명을 한탄해온 “위대한 애도자(the giant mourner, 70)”로 인지한다. 환상과 환청의 세계에서 셉티머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거리의 오르간 소리나 새들의 지저귀는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울프는 셉티머스의 죽음 직전에 루크레시아와 함께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며 평온과 행복을 누리는 순간을 배치함으로써 셉티머스의 죽음이 홈즈와 브래드쇼가 주창하는 관습적인 남성성과 영국을 번성케 한 균형과 전환의 원칙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홈즈와 브래드쇼의 관점에서 지시된 삶의 당위성과 판결문의 압박을 잠시 벗어나 셉티머스와 루크레시아는 “마지막으로 이룬 가장 위대한 기적이자 승리”인 순간을 누린다(148). 홈즈가 이 “신성한 장소”를 침범하고 들어설 때, 셉티머스는 “죽은 자로부터 온 진갈들,” 즉 “우주적인 사랑, 세상의 의미” 등을 그들만의 세계에 품은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다. 셉티머스의 죽음은 소설 속 여러 인물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지된다. 홈즈는 그의 자살을 “비겁한 겁쟁이”(149)의 행위로 인식하는 한편, 피터는 셉티머스의 사체를 싣고 가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의 승리,” “런던의 효율성, 조직성, 공동체 의식”을 자각한다(151). 셉티머스가 몸을 내던지는 순간 루크레시아는 그의 죽음을 “이해”하고(149), 의식을 잃으면서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깃발의 일렁임을 본다(150). 그녀는 바다 물결의 속삭임 속에 갈매기가 날고 나비가 나풀거리는 어느 곳에선가 “어떤 무덤 위로” 자신이 “꽃처럼 흩뿌려진다고” 느끼며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셉티머스가 이제는 “죽었음”을 소리 내어 말한다(150). 루크레시아는 기억과 환상이라는 온전히 사적인 영역에서 전사자의 죽음과 셉티머스의 죽음을 연관시킴으로써 그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시체처럼 혹은 대리석처럼 차갑고 뻣뻣한 무심함이 아닌 감각적인 생생함으로 셉티머스의 죽음을 애도한다.

멜베리네 꽃가게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껴 지났던 셉티머스와 클라리사의 의식은 클라리사의 파티에서 다시 마주친다. 셉티머스의 죽음은 브래드쇼 부부가 언급하는 “지연된 포탄 충격징후”를 앓던 젊은이가 자살을 한 “슬픈 사례”(183)로 클라리사에게 소개된다. 균형과 전환을 전파하는 무리들, 브래드쇼 경과 수상과 브루튼 부인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파티장을 떠나 클라리사는 아무도 없는 작은 방에서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의 죽음을 상상한다. “그는 창문에서 몸을 던졌다. 땅바닥이 솟구쳐 올랐고, 녹슨 철책이 그의 몸에 부딪히고 그의 몸을 멍들이면서 뚫고 들어갔다. 거기에 그가 누워 있었다. 그의 뇌가 쿵, 쿵, 쿵 울리고는 암흑 같은 질식”(184)에 다다른다. 클라리사가 셉티머스의 죽음을 인지하는 방식은 그의 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그녀 자신의 몸에 생생하게 새긴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동시에 사적이고 개별적이다. 클라리사가 낮모르는 “한 젊은이”의 죽음을 상상할 때 그녀는 “그녀의 드레스가 불길에 휩싸였고 그녀의 몸이 불길에 타버렸다”(184)고 느낀다. 울프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 셉티머스의 죽음을 참호 속에서 포탄에 맞아 죽음을 맞는 병사의 이미지와 병치시킨다.

클라리사가 셉티머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순간은 이렇게 전장에서 포격으로 전사한 에반스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 확장된다. 홈즈가 목격한 셉티머스의 죽음, 즉 “끔찍하게 영망으로 망가진”(150) 셉티머스의 몸은 프랑스의 참호에서 포탄이 터져 참혹하게 찢겨진 병사들의 몸과 죽음을 체화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터는 “피와 철”(blood and iron)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Houseman 97) 기관총과 대포, 폭탄과 포탄, 비행폭격기 등 유례없는 무기류가 개발, 사용되었고, 이러한 산업화/공업화한 전쟁은 전례 없는 대량 살상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전쟁터의 경험을 초래했다. 1915년 호주에서 프랑스 전선으로 파병된 사병이었던 토마스 드라이(Thomas Dry)는 1916년 1월 연이은 포격을 맞고 난 후의 경험을 가족에게 편지로 전한다. “모든 종류의 포탄이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포탄이 땅에 꽂힐 때마다 지축이 흔들렸지요. . . 단 한 발의 반격도 하지 못한 채 이 폭격으로 23대대와 24대대에서만 200명이 넘는 군인을 잃었어요. 그리곤 정적이 깔렸어요. 우리 참호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흙더미가 피라미드처럼 쌓였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흙더미를 헤치고 파내려고 했지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살점들, 두피, 다리들, 찢겨진 군복, 들 것에 실려 가는 일부만 남은 병사들”(Houseman 90-91). 전쟁터에서 날아온 수많은 편지들은 극심하게 신체의 손상을 일으켰던 전쟁의 끔찍한 양상을 전해준다. 『등대로』에서도 앤드류의 죽음은 포탄이 터지는 순간 “폭발해 버린”(blown up) 이삼십 명의 젊은이들의 처참한 죽음의 일부로 기술된다(133).

이렇게 볼 때 클라리사의 애도, 즉 전사자의 죽음과 고통이 몸에 새겨지는 지극히 사적이고도 친밀한 방식의 애도는 “영광스러운 사자들”이라는 추모 문구를 통해 전장에서의 죽음을 명예로 승양하고 수많은 이름 모를 전사자들을 시신도 없는 “텅 빈 무덤”에 매장하는 추상적인 방식의 공적 애도와 뚜렷이 구분된다. 또한 클라리사가 셉티머스의 죽음을 몸에 새기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은 에반스의 죽음을, 전장에서 수많은 포탄이 터지는 순간을 “무심함”으로 지켜보며 “아무 것도 느끼지 않았던” 셉티머스의 모습과도 대조를 이룬다. 공감을 통해 클라리

사는 셉티머스의 죽음이 균형과 전환이라는 원칙에 훈육되는 삶, “부패와 거짓말과 시시한 잡담으로 매일 조금씩” 메말라갈 삶에 대한 “항거”이자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184)였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클라리사의 사적이고 감각적인 애도는 이름 모를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서 더 나아가 마치 선물인 듯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이들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길 건너 편 집의 나이든 여인이 창가로 다가와 불을 끄고 잠들러 가는 모습을 클라리사는 경이로움으로 지켜보며 삶과 죽음, 활기와 휴식이 공존하는 순간을 인지한다. 자신의 파티와 참전 군인이었던 어느 젊은이의 죽음이 모두 삶에 대한 봉헌임을 되새기며 클라리사는 두려움 없이 마주하는 삶에서 “아름다움”(186)을 느낀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의 거리 해매기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킬먼과 헤어진 후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소란스러운 런던 거리를 걷던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최고로 위엄 있는 행위”를 해내고 있는 어느 여인을 상상한다(138). 마치 사람들이 행진이라도 하는 듯 거리에 울려 퍼지는 군악이 마지막 의식의 떨림 속에 죽어가는 이와 그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리라고 여기면서, 엘리자베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들고 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장엄하고 육중한 빙하의 흐름 같은 전체와 그 거친 물결에 휩싸인 “빠 조각, 푸른 이파리, 떡갈나무 조각”처럼 “이 삶이, 이 행렬”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싸안으리라고 여긴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삶과 죽음, 개인의 삶과 경험의 경계를 넘어 누구인지 모를 어느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공감하는 이들은 꽃을 산다. 『델러웨이 부인』은 “꽃을 사겠노라고” 말하며 6월의 런던 거리로, 신성한 활기 속으로 뛰어든 클라리사의 모습으로 시작하거나, 루크레지아는 장미꽃 다발을 사들고 셉티머스에게 돌아온다. 길거리에서 반쯤은 시들어버린 장미를 팔고 있는 불쌍한 꽃장수에게서 꽃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루크레지아가 거의 시들어버린 장미다발을 꽃병에 꽂자 햇살이 “웃고 춤추며” 방안을 가득 채운다(93). 셉티머스는 루크레지아가 안고 온 꽃다발을 에반스가 그리스의 들판에서 꺾은 꽃이라고 여기며 “소통이 곧 건강이며 행복”이라고 되뇌는다. 또한 브루튼 부인이 초청한 오찬에 다녀오던 리처드는 클라리사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장미꽃다발을 산다. 클라리사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녀와 함께 하는 자신의 삶을 “기적”이라고 여기는 리처드의 인식은 지나간 전쟁을 기억하고 전쟁이 앗아간 삶을 안타깝게 추모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삶이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수천 명의 가엾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땅에 묻혀 이미 반쯤은 잊혀졌음”(115)을 떠올릴 때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클라리사에 대한 사랑은 더욱 절실하다. 리처드는 결국 자신의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꽃다발을 받아든 클라리사는 “말없이도 이해”하며(118) 한 묶음이던 장미다발이 꽃병 속에서 제각기 흩어져 자리 잡는 모양을 보며 “정말로 황홀하게 아름답다”고 되뇌는다(119). 『델러웨이 부인』에서 삶을 사랑하고 삶에 대한 봉헌으로 꽃을 사는 이들은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보듬고 고통과 상실로 남아있는 전쟁을 기억하며 “최고로 위엄 있는” 삶의 행위인 죽음을 존중하고 애도한다. 울프에게 애도는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공감을 통해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통해 일어나며, 이는 곧 죽음을 내포한 삶의 경이로움을 인지하는 의례인 것이다.

(서강대)

Works Cited

- Cohen, Scott. "The Empire from the Street: Virginia Woolf, Wembley, and Imperial Monuments." *Modern Fiction Studies* 50.1 (2004): 85-109.
- Darrohn, Christine. "'Blown to Bits!': Katherine Mansfield's 'The Garden Party' and the Great War." *Modern Fiction Studies* 44.3 (1998): 513-39.
- DeMeester, Karen. "Trauma and Recovery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Modern Fiction Studies* 44.3 (1998): 649-73.
- Eckstein, Modris. *Rites of Spring: The Great War and the Birth of the Modern Age*. Boston: Houghton, 1989.
- Hagen, Benjamin D. "A Car, a Plane, and a Tower: Interrogating Public Images in *Mrs. Dalloway*." *Modernism/Modernity* 16.3 (2009): 537-51.
- Houseman, Laurence. ed. *War Letters of Fallen Englishmen*. 1930.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2.
- Kuhlman, Erika. *Of Little Comfort: War Brides, Fallen Soldiers, and the Remaking of the Nation after the Great War*. NY: New York UP, 2012.
- Lee, Hermione. *Virginia Woolf*. NY: Alfred A. Knopf, 1997.
- Mumford, Lewis. *The Culture of Cities*. NY: Harcourt Brace & Co., 1938.
- North, Michael. *Reading 1922: A Return to the Scene of the Modern*. Oxford: Oxford UP, 1999.
- Poole, Roger. "'We all put up with you Virginia': Irreceivable Wisdom about War." *Virginia Woolf and War: Fiction, Reality, and Myth*. Ed. Mark Hussey. Syracuse: Syracuse UP, 1991. 79-100.
- Saint-Amour, Paul K. "Air War Prophecy and Interwar Modernism."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42.2 (2005): 130-61.
- Trumpener, Katie. "Memories Carved in Granite: Great War Memorials and Everyday Life." *PMLA* 115.5 (2000): 1096-1103.
- Usui, Masami. "The Female Victims of the War in *Mrs. Dalloway*." *Virginia Woolf and War: Fiction, Reality, and Myth*. Ed. Mark Hussey. Syracuse: Syracuse UP, 1991. 151-64.

- Winter, Jay.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Woolf, Virginia. *The Dairy of Virginia Woolf*. Ed. Anne Olivier Bell. Vol. 1.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 _____. *The Letters of Virginia Woolf*. Ed. Nigel Nicolson and Joanne Trautmann. Vol. 2.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6.
- _____. *Mrs. Dalloway*. 1925. San Diego: Harcourt Brace & Company, 1981.
- _____. *To the Lighthouse*. 1927. San Diego: Harcourt Brace & Company, 1981.

AbstractWar Monuments and Mourning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Youngjoo Kim

It is well known that most of Virginia Woolf's writing is affected by the psychological trauma caused by the Great War. If the permanent sense of loss caused by the War remains irreparable in *Jacob's Room* and *To the Lighthouse*, Woolf mourns for the victims of the war including both the war dead and the war survivors in *Mrs. Dalloway*. 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the limit and power of mourning in the public and collective space as well as the private and intimate space in *Mrs. Dalloway*. Woolf's novel is interested in the ways that spaces in London are produced for the purpose of mourning after the Great War; however, Woolf is well aware of the denial or erasure of personal experience and perception by public gestures of mourning for the war dead. While Woolf's novel demonstrates the power of war monuments such as the Cenotaph and the tomb of the Unknown Warrior to introduce the worship for the glory of war and empire and thereby to bring order and stability back to the postwar London, it shows how their marble stare fails to mourn for the war dead in hurrying to bring closure to the trauma caused by the War. The rite of mourning in its true sense is enacted in Clarissa's meditation on the death of an unknown young man as she registers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young soldier in her own body, pays respect to his life and death as both the war victim and the survivor, and finally collapses the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soldiers.

■ **Key words** : Virginia Woolf, *Mrs. Dalloway*, The First World War, war monuments, fallen soldiers, mourning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제1차 세계대전, 전쟁기념비, 전
몰자, 애도)

논문접수: 2013년 5월 28일

논문심사: 2013년 6월 7일

게재확정: 2013년 6월 13일